

Kosinski 의 *Being There*

李 相 沃

서울大學校 英文科

야즈 코신스키(Jerzy Kosinski, 1932~)의 소설 『현존재』(*Being There*, 1970)를 놓고 우리는 여러 갈래의 접근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작품이 코신스키 자신의 정신적 자서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며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코신스키의 많은 소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서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유혹을 물리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작품을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환상적 소설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각도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야기 속에서 우화적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기 힘들다. 이 밖에도 우리는 이 작품을 한 탁월하게 쓰여진 정치적 풍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비평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 이 작품을 독립시켜 놓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를 『채색된 새』(*The Painted Bird*, 1965) 이후에 잇달아 나온 일련의 코신스키 소설의 맥락에 비추어서 그 위치를 가늠해 보려는 시도 또한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현존재』를 코신스키의 전 작품세계라는 문맥으로부터 독립시켜 놓고, 소설 제목이기도 한 “현존재”(being there)가 그 성격상 실제적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그 의미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특히 작품의 주인공격인 찬스(Chance)라는 사람의 삶의 실체와 그 외양 사이의 괴리때문에 그의 정체체가 오인·오해되는 문제와, 개개인 간의 이해의 단절은 숙명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도 필경 고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작가의 궁극적 믿음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이 글이 노리는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사실 『현존재』속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건대, 찬스의 정체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소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찬스의 잘못 파악된 정체야말로 이 작품에서 플롯의 구성 원리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서 큰 무리가 없다.

찬스의 정체는 그의 후견인이었던 노인(the Old Man)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또 한때 노인의 집에서 일했던 하녀 루이즈(Louise)가 자마이카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가망성이 완벽이 사라지고 만다. 우리는 물론 찬스가 노인의 사생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멜로드라마의 한 대목같은 추측을 할 수도 있으나 이 추측을 지탱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이 소설 속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한갓 부질없는 추측으로 끝날 수 밖에 없

다. 더우기 찬스 자신이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조그마한 추궁이나 추측도 하려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는 더욱 미궁에 빠진다. 반생을 노인의 집에서 거처하면서 노인의 정원사 노릇이나 하는데서 조그마한 불만도 느끼지 않고 자기개선의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찬스는 외부세계와는 사실상 완벽히 단절되다시피한 상황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가 상대한 사람이라고는 노인의 집에 고용된 하녀와 이따금 집안 수리를 위해 들락거리는 기능공 정도가 고작이고, 바깥 세계와의 유일한 통로는 찬스의 방에 설치되어 있는 한 대의 텔레비전 세트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의 사고나 판단의 기준이 여느 사회의 규범이나 법칙도 아니고 오직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그가 익히게 된 인간사회의 모습들인 것도 당연하다.

이와같이 사실상 철저한 고립상태에 살면서도 별 불편 없이 자족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찬스에게 위기가 들이 닥친 것은 노인이 죽으면서부터이다. 노인의 죽음은 그의 유산을 관리할 변호사들을 노인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이 변호사들이 찬스의 정체를 캐기 시작하자 찬스의 평온했던 삶은 위기에 부닥치게 된다. 이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실재했으면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찬스의 삶에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뜻에서 그의 일생에서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않는 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텔레비전 화면에 있어서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눈을 돌릴 때 사람들은 존재하기 시작한다. 눈을 돌려야 비로소 그 속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머물다가 새로운 화면이 나올 때 지워진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를 분명히 있게 할 수 있으며, 또 그의 정체를 열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눈에 띄지 않는 것은 흐려져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는 텔레비전 화면 속의 사람들을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노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스스로 눈에 띈 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눈에 앞으로는 띄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그는 반가웠다.

As long as one didn't look at people, they did not exist. They began to exist, as on TV, when one turned one's eyes on them. Only then could they stay in one's mind before being erased by new images. The same was true of him. By looking at him, others could make him be clear, could open him up and unfold him; not to be seen was to blur and to fade out. Perhaps he was missing a lot by simply watching others on TV and not being watched by them. He was glad that now, after the Old Man had died, he was going to be seen by people he had never been seen by before.¹⁾

이 귀절은, 『현존재』가 한 전지적(omniscient)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기 때문에, 서술자 즉 코스킨스키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서술자가 '아마도'(perhaps) 같은 자신감을 유보하는 부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귀절이 어느 정도까지는 찬스의 생각

1) Jerzy Kosinski, *Being Ther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0), p. 14.

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그는 반가웠다”(He was glad...)라는 주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서술자의 생각보다는 찬스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보고 싶은 유혹은 그만큼 더 커진다.

찬스의 반가움이 허망한 것이었음은 이내 판명된다. 변호사 토머스 프랭클린(Thomas Franklin)이 나타나서 찬스가 어린시절부터 노인의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찬스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이 그의 삶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a man’s name had an important connection with his life”)²⁾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던 그가 자기의 “찬스”라는 이름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찬스”라는 이름은 노인과 관계되는 그 어떤 문서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랭클린 변호사가 보기에는 찬스가 반생을 노인네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은 프랭클린 변호사와 찬스가 찬스의 정체를 놓고 주고 받은 대화의 일부이다.

“찬스씨, 선생께서 현주소가 나타나 있는 개인 신분증 같은 것을 내어 놓으신다면, 문제가 간단해 지겠읍니다만. 그것이 출발점이 되죠. 있잖아요, 수표책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의료보험 카드 같은 것...말예요.”

“내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찬스가 말했다.

....

“우리에게는 선생께서 이곳에 살았다는 증거가 좀 필요하답니다,” 프랭클린이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찬스가 말했다. “당신 앞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답니다. 이것을 빼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Mr. Chance, I think it would simplify matters if you could produce some personal identification indicating your address. That would be a start. You know, a checkbook or driver’s licence or medical insurance card...you know.”

“I don’t have any of those things,” said Chance.

....

“We shall need some proof of your having lived here,” Mr. Franklin said firmly.

“But,” said Chance, “you have me. I am here. What more proof do you need?”³⁾

이 귀절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현존재’에 대한 프랭클린의 인식과 찬스의 인식이 그 내용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찬스는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존재한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견해인데 비해서 프랭클린은 찬스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이 나타나지 않는한 찬스의 존재는 비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견해이다. 여기서 우리는 명목적이고 공식적인 존재와 사실적이고 실재적인 존재간의 간격을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실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명목적으

2) *Ibid.*, p. 16.

3) *Ibid.*, p. 22.

로 또 공식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한 그것을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우리가 사실상 존재하려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있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출생증명서, 호적, 은행 거래실적, 학적부, 동창회 명부 따위에 우리의 존재가 등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소설의 제목인 “being there”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인간을 포함하여 세계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있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있다는 것은 세계 속에서의 현존재이며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세계 속에 내던져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있음은 단순한 있음(being)이 아니고 “거기 있음”(being there, *Da-sein*)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현존재는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런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실존이다.⁴⁾ 그러므로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실존은 부단한 개체의 자아인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실존하는 인간은 꾸준히 자기가 그 속에 던져진 상황에 대해 자각하고, 반응하며, 행동하고 또 책임지기도 한다. 실존(existence)이라는 낱말의 어원(*ex-sistere*)속에 나타나 있듯이 실존은 “나타나다”(emerge) 혹은 “특출하다”(stand out)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개체는 어느 정도로 개별적 실존을 가지느냐에 따라, 즉 개별적 실존을 가질수록 그만큼 더 일반적 존재로부터 “특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는 자기가 일반적 존재로부터 특출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또 이런 자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의 제반 사항에 대해 반응하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실존의 상황은 인간으로 하여금 응분의 자율성을 띠게 하는 한편 스스로 그 속에 던져진 상황에 대해 불안감마저 느끼게 한다.

요컨대, 현존재의 본질은 세계 속에 “있음”이 지니는 다면적 “있음”의 양식에 대해 열려 있고, 이런 “있음”의 양식 속에서 의미를 체험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이런 현존재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찬스의 현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자기로서는 책임을 전혀 질 수 없는 어떤 경위로 이 세계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뜻에 있어서 다른 인간들의 숙명과 다를 바 없다. 그의 이름이 “찬스”(Chance)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어떤 우연(chance)에 의해 이 세상에 던져졌음을 시사하므로 우리에게 아주 흥미있다. 그러나 그가 반생을 살아 오는 동안 주위 세계에 대해 보인 반응이 어느 인간의 그것과 같았는가 하는 의문이 대두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렇다고만 대답할 수가 없는 데서 문제가 야기된다.

4) 여기서 “현존재”라 함은 “being there” 혹은 *Da-sein*의 번역어이다. 현존재와 실존의 개념을 규정한 중요 철학자로는 Martin Heidegger를 들 수 있다.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형이상학은 무엇인가』(*Was ist Metaphysik?*) 등에서 개진한 Heidegger의 “현존재”관은 安相鎭 교수의 『M. Heidegger의 「存在와 時間」에 관한 研究(上-2)』(서울대학교, 『人文論叢』, 제11輯)의 후반부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소설의 서두에는 전지적 작가의 목소리로 식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즉 식물은 인간과 생존양식에 있어서 닮은 점도 없지는 않으나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또 이성적 사고나 꿈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⁵⁾ 식물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이 이리할진대, 찬스의 삶은 과연 참된 인간의 삶일까 아니면 차라리 식물적 존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답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우리는 아마도 다음 귀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원 속은 안전했고 위험이 없었다. 정원은 담장이 덩쿨이 뒤덮인 높은 붉은벽돌 담으로 둘러싸여 길거리에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리조차도 정원의 고요함을 깨지는 못했다. 찬스는 길거리를 무시했다. 그는 집과 정원 밖으로 걸어나간 적이 없었지만 담 저쪽편의 삶에 대해서 궁금히 생각하지도 않았다.

It was safe and secure in the garden,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street by a high, red brick wall covered with ivy, and not even the sounds of the passing cars disturbed the peace. Chance ignored the streets. Though he had never stepped outside the house and its garden, he was not curious about life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⁶⁾

인간이 세계 속에 실존한다는 것이,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자기가 던져진 상황 속에서 맹목적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제반상황에 대해 꾸준히 반응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또 불안해 하기까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반생을 정원 속에서 식물이나 돌보며 살아온 찬스의 존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간적 삶이라 하기는 어렵다. 찬스가 비록 인간의 삶이 지닌 외형적 형식을 갖추고서, 인간의 말을 사용하며, 극히 소수의 사람들과는 사회적 관계마저 유지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점이 그의 삶을 인간적 혹은 실존적 삶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존재는 단순한 “있음”(being)은 될 수 있을지언정 “거기 있음”(being there) 즉 “현존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이 죽고 찬스의 정체가 변호사 프랭클린에 의해서 추궁되었다는 것은 찬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위기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환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 3자에 의한 정체추궁이 그에게는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안주해 오던 세계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찬스는 노인의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자기가 한번도 더더 본 일이 없는 바깥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그의 삶이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때까지 찬스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바깥세상과 접촉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깥세상의 삶의 양식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5) *Being There*, pp. 3-4 참조.

6) *Ibid.*, p. 4.

접해 본 세계가 그 세계의 실상일 수는 없다. 따라서 몸소 바깥세상으로 걸어 나온 찬스는 사실 그 세상에서 하나의 완벽한 이방인 일 수 밖에 없다. 소설 『현존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두번째 관심사는 이 “이방인”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접해 오던 실세계 속에 던져진 후 그 세계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찬스와 그가 접하는 사람들 간의 이해의 단절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부각된다.

찬스는 길거리로 나온 후에 이내 가벼운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되어 어느 대재벌의 집으로 실려 가는데 사실 『현존재』의 줄거리는 찬스가 이 새로 옮겨 온 집에서 보이는 언동을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찬스의 언동이 이 소설에서 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모두 그의 정체에 대한 주위의 완벽한 오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찬스는 랜드(Rand) 일가에 머물면서 랜드내외의 보살핌을 받게 되지만, 랜드내외는 찬스의 외모와 옷차림만을 보고 그를 상당한 경문을 쌓은 실업가라고 단정하고 그에게 응분의 대접을 하게 되며 이 때부터 찬스의 오해된 정체 때문에 빚어지는 희극은 숨가쁘게 고조된다.⁷⁾ 그가 대통령의 친구요 조언자로 텔레비전에 오르게 되자 백악관과 소련대사관에서 찬스에게 보이는 관심은 이 소설로 하여금 하나의 정치적 풍자가 되게 하고, 랜드부인이 자기의 성적 욕구불만 해소의 상대로 찬스를 이용하려는 장면을 비롯한 몇몇 장면들은 이 소설을 희극으로 만들기도 한다. 여기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랜드부처, 소련대사 및 대통령이 찬스의 정체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그 노력의 과정을 통해 어떤 웃지 못할 난센스가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탐색의 과정이 어떻게 모두 실패로 끝나는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찬스의 정체에 대한 오해는 그가 자동차에 치인 직후 벤자민 랜드부인(Mrs. Benjamin Rand)에 의해 구조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다음 장면은 랜드부인이 찬스의 정체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그릇된 해석을 하게되는 경위의 시초를 보여준다.

여인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벤자민 랜드부인이예요. 친구들은 저를 EE라고 부르죠. 제 본 이름이 엘리자베스 이브이기 때문이죠.

“EE시라구요” 찬스가 무거운 어조로 받아 말했다.

“EE예요” 부인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7) 오해되었거나 잘못 파악된 정체(identity)는 코신스키의 소설의 여러 중요한 대목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채색된 새』(The Painted Bird)의 제목인 ‘채색된 새’는 이 소설에서 오해된 정체가 벗어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상징하고 있다. 이 소설의 제 5장에는 새를 잡아서 파는 레흐(Lekh)라는 사나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장난삼아서 채색한 새를 날려 보내면 새는 어김없이 자기 무리를 찾아 가지만 그의 무리들은 이 채색된 새를 다른 종류의 새와 오인하고 쫓아서 죽인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이 채색된 새는 물론 소설의 서술자인 소년이 동족으로부터 유대인 혹은 짐사로 물려서 박해받는 것과 아날로지를 이루므로 우리에게 흥미 있다. 한편, 소설 『블라인드 데이트』(Blind Date)에는 정체를 오인 받은 사람이 자기를 오인한 사람들에게 꿀탕을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즉 주인공(Levanter)이 알프스의 스키장에서 자기의 정체를 오인한 소련사람들을 혼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Bantam판 pp. 20-23 참조)

찬스는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경우에 부닥쳐서 자기네 자신들을 소개하던 것을 생각해 냈다. “저는 찬스지요,” 그는 더듬거리다가 이 이름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덧붙였다. “가드너(정원사)예요”

“혼시 가드너 시라구요,” 그녀는 말했다. 찬스는 그녀가 자기 이름을 고친것을 알았다. 그는 텔레비전에서처럼 자기가 이제부터는 이 새 이름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The woman introduced herself. “I am Mrs. Benjamin Rand. I am called EE by my friends, from my Christian names, Elizabeth Eve.”

“EE,” Chance repeated gravely.

“EE,” said the lady, amused.

Chance recalled that in similar situations men on TV introduced themselves. “I am Chance,” he stuttered and, when this didn’t seem to be enough, added, “the gardener.”

“Chauncey Gardiner,” she repeated. Chance noticed that she had changed his name. He assumed that, as on TV, he must use his new name from now on.⁸⁾

랜드부인은 여자다운 섬세함에서 찬스의 정체를 캐어내기 위해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찬스의 소지품을 일일이 뒤져 보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가지들——실은 죽은 노인이 입던 옷으로서 모두 극상품들이었다——이 최신 유행제품이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그를 이 사회와 관련지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만다. 즉 찬스에게는 수표책도, 돈도, 신용카드도, 운전면허증도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랜드부인 같은 호사가에게는 자기가 해석하는대로의 인간으로 부각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찬스를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결혼생활에서 문제에 부닥친 사나이일 것이라는 자기 멋대로의 추측을 할 뿐더러 이 점을 자기 남편에게까지 믿게 한다.

랜드부인은 이때부터 찬스의 허상을 스스로 만들어 낸 후 이에 충실히 따라다니게 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찬스를 자기네와 같은 지배적 계층의 일원으로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찬스의 태도만으로도 “사회적 자신감과 재정적 안정”(“social confidence and financial security”)⁹⁾이라는 자기네 사회에서 가장 높이 보는 가치를 잃어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편 랜드부인은 찬스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유혹하려 하지만 찬스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없자 벽에 부닥친다. 노인 집에 출입하던 기능공이 보여준 춘화에 대한 찬스의 반응이라든가 또 랜드부인과 어떤 사내로부터의 성적 접근에 대해서 보인 찬스의 반응으로 미루어 우리는 찬스가 성적으로 완벽히 무력하거나 깨우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랜드부인은 이 점에 대해서도 오해한 채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다. 즉 그녀는 찬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성적 무능력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여성을 속속들이 정복하고 또 여성으로 하여금 찬스자신의

8) *Being There*, p. 33.

9) *Ibid.*, p. 78.

사랑을 필요로 하게 하고, 또 그리워하게 하려는 고차원적 의도 때문일 것이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 이와같은 오해는 발언될 때마다 극적 아이러니를 자아내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그만큼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

랜드부인과 찬스와의 관계는 한 때 강철왕의 부인이었다가 나중에 코신스키와 결혼한 메어리 웨어 Mary Weir라는 여인과 코신스키와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전기적 비평에 조금이나마 뜻을 둔 사람이라면 으레 제기할 것이다. 또 랜드부인의 본명이 엘리자베스 이브(Elizabeth Eve)라는 사실에 착안한 독자라면 랜드부인이 찬스를 유혹하려 한 대목들을 보고서 에덴동산(The Garden of Eden)의 신화를 마음 속으로 떠올리면서 찬스에게서 아담(Adam)의 속성을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즉 랜드부인이 찬스를 유혹하려 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충동 때문이 아니고 금단의 과실을 아직 먹지 않은 아담처럼 순진무구한 찬스에게 선과 악의 지식을 부여해주려는 시도로 보고자 할지도 모른다. 더우기 찬스의 직업이 정원가꾸기이기 때문에 그가 정원과 맺고 있는 인연이 이런 비평적 시도의 유혹을 더욱 물리치기 힘들게 만든다. 이런 신화비평적 접근은 확실히 흥미있고 또 이 『현존재』라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겠지만, 전기 비평의 가능성과 아울러, 여기서는 일단 접어 두기로 한다.

그러나 찬스——아니, 촌지 가디너——가 갑자기 미국사회의 중요인물로 존경받게 되는 경위만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찬스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무런 장애 없이 일하며 제배할 수 있는 알맞은 정원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자 랜드가 이를 경제운영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속단하며 환영하는 말이다.

그 참 말 한번 잘 했어... 정원사라니! 그야 말로 진정한 실업가를 설명하는 낱말로는 완벽하지 않은가... 암, 촌지, 그렇구 말구, 참으로 뛰어난 은유라구! 생산적인 실업가는 사실 자기 과수원에서 일하는 실업가나 다름 없단 말이야.

Very well put. ...A gardener! Isn't that the perfect description of what a real businessman is? ...Yes, Chauncey, what an excellent metaphor! A productive businessman is indeed a laborer in his own vineyard!¹⁰⁾

이렇게 랜드부인에 의해 처음 발단이 되었고 벤자민 랜드에 의해 확대된 찬스에 대한 오해는 견잡을 수 없이 미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다. 대통령이 찬스의 탁월해 보이는 시극관에 매혹되면서부터 찬스의 견해는 대통령의 연설에서 거론되기에 이르고 이내 소련대사관의 관심까지도 끌게 된다. 랜드부처의 찬스에 대한 오해가 개인적 차원의 오해이고 기껏 희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서, 스크라피노프 대사의 오해는 국제정치차원에서의 오해이므로 정치풍자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스크라피노프는 어떤 공식적

10) *Ibid.*, p. 43.

인 사고모임에서 찬스를 만났을 때 찬스가 러시아어를 해독할 뿐만 아니라 크릴로프(Krylov)의 우화까지 원전으로 알고 있는 지적 엘리트일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래서 찬스의 정체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진 스크라피노프는 정보담당관인 카르파토프(Karpatov)에게 찬스에 대한 자료를 대령하라고 요구하지만, 카르파토프는 “우리는 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존재한 일이 없는 성실을 지경입니다”(“We have been unable to discover even the most elementary information about him. It is almost as if he had never existed before.”)¹¹⁾라고 보고한다. 이 보고는 찬스의 존재가 단순한 물리적 존재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결코 한 인간의 실존적 현존재는 될 수 없다는, 앞서 우리가 검증해 본 바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특히 흥미있다. 또 술킨(Sulkin)이라는 대사관의 정치적 실권자가 찬스의 텔레비전 출현 녹화 테이프를 모스크바에 전송하여 분석하게 한 결과로 얻은 다음과 같은 결론 또한 찬스의 존재가 현존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흥미있다.

이 테이프를... 신속한 정신병과적, 신경과적, 그리고 언어학적 검사에 회부하게 했다네. 우리의 최신 모델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팀은 가디너의 어휘, 통사법, 액센트, 몸짓, 얼굴 및 다른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지. 그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네, 그의 민족적 배경을 그 어떤 식으로도 단정한다든가 그의 액센트를 듣고 미국의 어느 단일지역의 출신이라고 알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거든.

This tape,... was submitted to prompt psychiatric, neurological, and linguistic examination. With the aid of our latest-model computers, our teams have analyzed Gardiner's vocabulary, syntax, accent, gestures, facial and othe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may surprise you. It proved impossible to determine in any way whatsoever his ethnic background or to ascribe his accent to any single community in the entire United States!¹²⁾

소련 정보망의 일부가 탄로되는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공을 들여서 얻어낸 촌시 가디너라는 허상에 대한 정보는 결국 “한 장의 백지”(“a blank page”)에 불과했기 때문에, 술킨이 내리는 결론은 찬스가 쿠데타를 계획하는 일단의 미국인 엘리트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 음모에서 찬스가 맡은 역할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의 정체에 관한 모든 단서마저 철저히 말소해버렸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단정을 내리는데, 이쯤되면 이 소설의 희극적, 풍자적 성격도 상당히 드러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정부 측의 소동 또한 소련대사관 측의 그것에 비해 못지 않게 야단스럽다. 대통령은 벤자민 랜드의 저택에서 찬스로부터 정월가꾸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이를 경제정세에 대한 탁월한 은유적 발언이라 여기고 곧 이에 매혹된 나머지 촌시 가디너야말로 최고의 실업가라고 떠받드는 한편 그의 배경을 캐어내라는 지시를 하달한다. 처음에는 비서진에

11) *Ibid.*, p. 130.

12) *Ibid.*, p. 133.

게 부탁하여 알아보게 하던 대통령이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자 정보당국까지 동원하여 찬스의 정체를 추적하지만 결국 얻어낸 것은 기껏해야 “그 사람은 사흘 전에 랜드의 집으로 옮겨 오기까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했던 성실지가 없습니다”(“The man doesn't seem to have existed until he moved into Rand's house three days ago”)¹³⁾라는 보고 뿐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인간의 현존재는 일련의 사회적 관계를 내포해야지 그것이 없을 때는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되고 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존재하면서도 실존하지 않는 찬스의 정체를 둘러싼 소동은 결국 대통령을 낙망시킨다는 대목에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기라는 풍자문학의 특성은 아낌없이 활용되고 있다.

대통령은 휴식하기 위해 이층의 거처로 올라갔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군, 믿을 수 없어, 그는 생각했다. 이들 정보기관에 매년 많은 예산을 할당해 주는데도, 뉴욕시의 가장 훌륭한 저택 중의 하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뛰어난 실업가 중의 한 사람의 손님이 되어 머물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 사실조차 내게 제공해주지 못하다니! 혹시 우리 연방정부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세력이 작용하고 있을까? 그는 한숨을 지으며, 텔레비전을 켜고 잠이 들었다.

The President went upstairs to his apartment to rest. It's simply incredible, he thought, incredible. Millions of dollars are allocated each year to each of these agencies, and they can't supply me with even the most rudimentary facts about a man now living in one of the best town houses of New York City as a guest of one of our most prominent businessmen. Is the Federal Government being undermined? By whom? He sighed, turned on TV, and dropped off to sleep.¹⁴⁾

대통령에 의해 대표되는 미국정부에 대한 풍자는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합석하여 부통령후보자로는 손시 가디너같은 배경이 저저분하지 않는 사람이 최적임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토의하는 대목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앞에서 랜드부처, 스크라피노프 대사 및 대통령이 보인 찬스에 대한 관심을 살피는 가운데 어느정도 명백히 드러났으리라 생각되거나 찬스와 여타 인간들간에 벌어지는 희극은 모두 찬스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상 실패를 거듭하는 데서 연유한다. 즉 찬스는 자기가 반생동안 해 온 정원가꾸기만을 놓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도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순박한 설명에서 깊은 의미를 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되어 등장하는 것이다. 가령 찬스가 “위층에 있는 방”(“the room upstairs”)라는 말을 할 때 벤자민 랜드는 이것을 사람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로 오해한다든가,¹⁵⁾ 무식해서 신문을 읽지 못하는 찬스가 자기는 신문을 읽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고백할 때 취재기자는 이를 공직자로부터 얻어 낸 가장 정직한 자백이라고 하며 감명받기도 한다.¹⁶⁾ 이런 것은 찬스와 주위 인물들

13) *Ibid.*, p. 137.

14) *Ibid.*, pp. 140-141.

15) *Ibid.*, pp. 43-44 참조.

16) *Ibid.*, pp. 101-102 참조.

간에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두 예에 불과하다.

이 소설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혹은 불가능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희극적 풍자적 효과만을 자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소설을 한 현대의 우화로 만들고 있기도 하다. 즉 우리 개체의 삶은 그 본질——그런 것이 있다고 치고——보다도 개체의 삶을 보는 담들의 선입견이라든가 그 선입견을 낳는 데 책임있는 사회적 관계 등에 의해서 더 잘 규정될지 모른다는 한 궁극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우화로 읽어서 이 『현존재』란 작품은 별 손색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주위의 인식은 삶 그 자체보다도 삶의 허상들에 의해 더 잘 좌우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소설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찬스가 반생동안 열심히 시청해 온 텔레비전은 삶의 실체에서 허상만을 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불가능성을 암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찬스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장면을 그리는 대목에서 코신스키는 텔레리전 시청자들이 찬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정체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찬스와 시청자들 사이의 참다운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텔레비전은 오직 사람들의 표면만을 반영했다.... 찬스는 수백만의 실제 인간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로 되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리얼한가를 영영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반영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에게, 시청자들은 오직 자기 생각을 투영한 것, 즉 이미지로만 존재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리얼한가를 영영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만난 적이 없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Television reflected only people's surfaces.... Chance became only an image for millions of real people. They would never know how real he was, since his thinking could not be televised. And to him, the viewers existed only as projections of his own thought, as images. He would never know how real they were, since he had never met them and did not know what they thought.¹⁷⁾

이 인용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니와 텔레비전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간의 궁극적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간 숙명의 한 측면을 대표하는 상징 구실도 하고 있다.

찬스는 반생을 노인의 집에 갇혀서 살면서도 담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텔레비전 화면이라는 간접적인 방편을 통해서만 유지해 온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삶은 주위 세계로부터는 철저히 단절되고 소외된 세계 속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찬스가 현대 사회 속에서 다수 대중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많은 개인들의 삶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찬스가 노인네 집에서 담 밖으로 추방된 이후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이에 보이

17) *Ibid.*, p. 68.

는 언동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우화적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비평적 모색은 물론 자칫하면 허황해질 수도 있고 또 부질없는 노력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많은 우화의 뜻이 그러하듯이, 『현존재』의 궁극적 메시지도 잘 캐어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할 해줄 수 있다. 이를테면 찬스같이 전혀 세속적 시달림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언동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값진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유용한 물음을 던져볼 수도 있다. 혹은 찬스야말로 현대인이 모색해야 할 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가정도 세워볼 수 있다. 이런 물음이나 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찬스와 접촉한 사람들이 찬스에 대해서 내린 논평이나 단정적 발언을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찬스가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본 이 세계의 허상 뿐이고 그가 참으로 친숙히 알고 있는 것은 정원가꾸기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잘 아는 정원 이야기만 해 왔고 모든 것을 정원에 비추어서 설명하려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하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찬스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들이 그에 대해서 오해했거나 그의 발언을 과잉해석한 데 대한 책임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여러가지 흥미있는 논평이나 단정을 내리게 유도한 데 대한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논평이 특히 우리에게 흥미있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 현대인에게 결핍되어 있는 자질들을 회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의 논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벤자민 랜드는 뉴욕 금융가를 주름잡는 대실업가로서 찬스의 정원가꾸기론에서 은유적 의미를 자기 멋대로 찾은 나머지 “자네에게는 내마음에 드는 점이 있단 말이야... 자네는 솔직해. 자네는 사물을 재빨리 파악하여 명백하게 진술한단 말이야”(“there’s something about you that I like... You’re direct: you grasp things quickly and you state them plainly”)¹⁸⁾라고 찬사를 늘어 놓는다. 여기서 랜드는 온갖 미사려구나 허사들을 동원하여 속이 빈 회피적 언사만 늘어놓기 쉬운 현대인의 어법에 자기가 얼마나 혐오감을 느껴 왔는지를 넉넉시 비침으로써 스스로 추구해오고 있던 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즉 그는 “사물을 재빨리 파악하여 명백하게 진술하는” 능력이 현대인에 의해 차츰 의면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이 능력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계절과 정원과의 관계에 대한 찬스의 의견을 듣고 역시 이를 과잉해석한 나머지,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오래동안 들어보지 못한 아주 참신하고 낙관적인 진술 중의 하나입니다”(“What you have said is one of the most refreshing and optimistic statements I’ve heard in a

18) *Ibid.*, p. 45.

very, very long time”)¹⁹⁾이라고 논평하는 것도 랜드의 찬사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에 출연한 찬스의 “시국관”을 시칭한 프랭클린 변호사의 부인은 오늘날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른 하나의 인간상을 찬스에게서 찾고 있다. 그녀는 찬스에게 상당한 인품이 있으며 테드 케네디와 케어리 그란트 간의 튀기같은 특성이 있다고 찬양한 후에 “그는 가짜 이상주의자나 IBM화된 기술관료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He is not one of those phony idealists or IBM-ized technocrats”)²⁰⁾라고 논평한다. 이는 기술관료 지배시대에 능률과 생산성이라는 미덕을 앞세우고 비인간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이비 이상주의자들에게 식상한 현대인이 찬스같은 세속적으로 깨이지 못한 인간에게서 건전한 인간적 미덕을 찾으려 하는 노력의 일단을 암시하므로 특히 흥미있다. 또 어느 연회석상에서 찬스와 대화한 여인이 찬스에게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가장 단순한 인간적 용어로 환원할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the uncanny ability of reducing complex matters to the simplest of human terms”)²¹⁾을 찾아내고 경탄하는 것도 그녀가 현대인이 차츰 상실해 가는 귀한 능력 한 가지를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또 스크라피노프 대사가 찬스의 텔레비전 회견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철학”(“down-to-earth philosophy”)²²⁾라고 논평하는 것도 물론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찬스와 접촉한 사람들이 찬스의 인품이나 태도 및 견해에 대해 보인 매혹과 찬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랜드부인의 말 속에서 모두 요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신처럼 건강한 사람은 아주 드물거예요.... 당신은 천사예요. 아직껏 당신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서 도움과 위안을 주고 계시다니 참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Very few are as healthy as you are.... You're an angel, my dear. Thank God there are still men like you around to give aid and comfort.²³⁾

지금까지 우리는 소설 『현존재』(*Being There*)를 놓고 그 존재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비평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 소설의 궁극적 메시지는 여사여사하다고 꼬집어 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몇가지의 문제점이 우리 눈에 띄기는 했다.

첫째, 우리는 이 소설에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는 철학적 명제를 읽을 수 있었다. 즉 우리가 이 세계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있음”(being)으로서가 아니고 실존적인 “거기 있음”(being there) 즉 현존재(*Da-sein*)로서인 것이다. 작가는 바로 이점을 천명하기 위해서 찬스라는 인물을 창안해 냈고 그의 성격구성을 통해 이점이 재삼 확인될

19) *Ibid.*, p. 57.

20) *Ibid.*, p. 74.

21) *Ibid.*, p. 112.

22) *Ibid.*, p. 93.

23) *Ibid.*, p. 118.

수 있게 했다. 또 이 점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혹은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도 상당한 철학적 조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각별한 주목을 끈다.

둘째, 코신스키는 『현존재』 속에서 한 현대의 우화를 쓰려고 한 것 같다. 그는 비록 이 우화의 도덕적 의미를 극명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를 독자들에게 남겨 놓기는 했지만, 하나의 우화를 쓴 것만은 틀림없다. 이것을 만약에 우화라고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소설이 지닌 가공적 성격 앞에서 곧 벽에 부닥치게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사실주의 소설의 속성들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한 사실주의라 보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한 측면들도 여럿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신스키가 찬스라는 인물속에서 한 현대판 만인(Everyman)을 그려내려고 했는지 어쩐지는 확실치 않으나, 하여간 그가 현대인의 운명에 대해 몇 가지의 유용한 시사를 던져 줄 우화를 이 소설속에서 시도하고 있었으리라는 추단은 별 무리 없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코신스키는 찬스라는 인물속에서 한 이상적인 인간을 그려 보려고 한 것 같다. 사실 현대인은 기계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 못지 않게 점점 그 노예로 전락해 가고 있고, 정보의 범람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과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코신스키는 이런 문명의 모든 이기들로부터 해방된 한 자유인의 진전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런 찬스의 모습을 강조해 가다 보면 우리는 이 『현존재』라는 소설이 현대의 우화일지 모른다는 추단앞에 점점 더 승복해 갈 것이다. 이 소설의 끝부분에서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찬스를 부통령 후보로 검토하는 가운데 그를 “우리중의 한 사람”(“one of us”)이라고 부르면서 “가디너야말로 우리가 가진 한 찬스”(“Gardiner is our one chance”)²⁴⁾라고 부를 때 이런 단정들이 단순한 부통령 후보로서의 찬스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보편적 차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인간이라는 주장으로 들리는 것도 이 소설의 작가가 찬스를 한 이상적 인간, 혹은 한 바람직한 만인(Everyman)으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4) *Ibid.*, p. 147.